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auri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기본 과제	아동친화 주거공간 조성·운영을 위한 사업모델 및 지원방안 연구	엄철호
	건축물 공간정보 빅데이터 시범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허한결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축물 통계 개발 연구	조영진
	치매친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방안 연구	고영호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건축기본법 개정 연구	김영현
수시 과제	스마트건축 인증 세부평가기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남성우

기본과제

① 아동친화 주거공간 조성·운영을 위한 사업모델 및 지원방안 연구

우리 아이들은 과연 행복한가? 국가의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전국의 주거빈곤 아동도 9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UN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아동의 4대 권리로 제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가 권리 등 아동이 누려야 할 필수 권리로서 주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공간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며,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서 주거환경이 아동의 심리적, 신체적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우리 주거공간에서 아동을 위한 배려는 그다지 깊게 다루지 못했다. 아동의 권리나 아동복지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동친화도시에 비해 아동친화 주거공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아동을 고려한 주택정책이나 주거기준 또한 아동친화보다는 육아친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 상대적으로 중요시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동친화 주거공간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즐겁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이 중심이 되는 주거공간으로, 주택의 기획부터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주택 내부뿐만 아니라 주택의 외부공간, 인접한 도시공간까지를 포괄하는 영역에서 아동에 대한 비차별, 발달, 참여, 안전, 창의, 소통 등을 고려한 공간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보편적인 아동친화 주거공간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부-지자체-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아동친화 주거공간 조성·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사업모델, 그리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팀과 협동연

구로 진행하며, 도출한 사업모델이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지역개발사업(생활공간 조성 사업)의 한 유형으로서 아동친화 주거공간이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와 주체성을 가진 하나의 주체로서 아동이 중심이 되는 주거공간의 개념과 사업모델이 확산되고, 나아가 빈곤여부, 소득수준, 가구형태에 따른 아동의 거주환경과 발달의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염철호

## ② 건축물 공간정보 빅데이터 시범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및 사업 시행을 위해 건축물 빅데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트윈, 스마트시티와 같은 데이터 기반 정책 도입이 촉발되고 있다. 건축물 정보는 기획부터 소멸까지 건축물 생애주기 전과정에 걸쳐 구축되는 국민의 주거, 경제활동, 안전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로, 이를 기반한 빅데이터 도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건축서비스 산업 정보체계(건축HUB)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에 근거한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는 건축 신산업 개척, 건축산업의 업역 다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건축물과 공간단위 정보가 통합된 건축물 공간정보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 민간·공공 간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활성화 방안, 데이터 품질 개선 및 표준화 방안의 부재는 향후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활성화를 위협한다. 특히, 구축된 적 없는 건축물 공간정보 빅데이터의 오류발생 및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상태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건축물 행정정보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 공간정보 빅데이터를 시범구

축함으로써 건축물 공간정보 빅데이터 구축 방법을 실증하고, 구축 과정에서 발생될 문제점을 도출하고, 건축물 공간정보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정보표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연구대상지를 선정하여 실제 건축물 공간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건축·공간 빅데이터 구축 방법을 실증하고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확인하며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빅데이터의 활용방향을 도출하고 ▲데이터 표준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허한결

## ③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축물 통계 개발 연구

건축물 관련 통계는 정책 기초 자료, 사회·경제지표, 관련 산업과 연구 등 여러 부문에 다수 활용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사회가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최근 건축물 관련 통계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건축물 통계, 건축허가착공 통계와 같은 국가승인 통계(보고통계)뿐만 아니라 건축행정시스템의 맞춤형 건축 통계, 건축물 관련 원시데이터 등 여러 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공되는 건축물 인허가, 착공, 현황 등의 통계로는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여러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건축물 관련 국가승인 통계(건축물 통계,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 등은 전국 및 광역 단위 건축물의 동수/연면적 중심의 물량 제시로 연차별/분기별 건축물의 대략적인 양적 변화에 대한 정보는 파악할 수 있으나, 건축 시장의 세밀한 변화를 살펴보고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와 해상도에 한계가 있다. 또한 최근 빅데이터 관련 기술의 발전과 유관 공공데이터의 개방으로 기존 데이터에 이기종 데이터를 융합하여 기존에는 알 수 없던 사실(데이터)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 데이터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통계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기존 건축물 관련 통계와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재 건축물 국가승인 통계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건축행정정보를 토대로 신규 통계를 생산하고자 한다. 또한 건축행정정보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안전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융·복합 통계를 시범 생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통계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건축물 관련 통계수요에 대응하고, 건축물 통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건축물 관련 정책과 산업에서 데이터와 증거 기반 의사결정을 보다 편리하게 이루고자 한다.

조영진

#### 4 치매친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방안 연구

2025년 대한민국의 고령인구는 1,000만 명, 치매 어르신은 100만 명을 돌파하고, 2060년에는 치매 어르신이 332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다(통계청, 2019; 중앙치매센터, 2021). 2019년 전국의 추정 치매 어르신 79만 4,290명을 대상으로 투입되는 국가의 치매관리비용은 약 16.5조에 이르며, 2040년 약 63.1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중앙치매센터, 2021).

관련하여 국가는 국정과제45 ‘100세 시대 일 자리 건강 돌봄체계 강화’를 통해 치매돌봄 체계 강화, 지역사회 지속거주 실현의 환경 조성을 강조하였다. 국가와 지자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년 제정), 「치매관리법」(2012년 제정)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치매안심사회 실현을 목표로 관련 인프라와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있다. 특히, 중앙과 광역에 치매센터를 설치하고, 시·군·구에는 치매안심센터를 두어 치매관리 지침의 개발, 시행계획 지원, 치매인식개선 교육 홍보, 치매안심마을 운영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치매 어르신과 돌봄가족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재가·시설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가 서비스

대비 시설 입소를 통한 요양·돌봄의 실효성으로 인해 치매 어르신의 사회적 입소·입원이 증용되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치매 고령자와 가족이 시설이 아닌 지역 생활환경에서 최대한 독립적 활동과 일상생활 영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특성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내외의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과 사례,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하고, 국민과 치매 어르신의 돌봄가족 대상의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특성과 FGI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치매 어르신의 사회적 입소를 가능한 방어하며, 치매 어르신 가족의 부담부담과 국가·지자체의 관리부담 완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고영호

#### 5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건축기본법 개정 연구

현대 사회의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종합적 성격의 정책이 요구되면서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법’이 제정되어 왔다. 건축 분야에서는 2007년 「건축기본법」이 제정되며 건축물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한 건축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건축정책을 추진한 지난 15년 동안 건축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건축정책 세부 분야별로 신규 법령들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 경관관리, 녹색건축 확대, 도시재생 활성화,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건축자산 관리 및 활용, 건축문화 진흥 측면에서 많은 정책적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건축정책의 실행력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다. 국가정책을 다루는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역 건축기본계획의 정책

대상과 내용의 차별성이 부족하며, 「건축기본법」 이후 제정된 건축 관련 법령관계,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 계획 간의 관계 정립도 불분명하여 정책 추진 시 혼선을 빚기도 하여 건축 관련 정책계획 간의 명확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 변화, 기술 발전 등에 따라 건축물의 공공성 확보라는 기본적인 정책이념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건축정책의 이념과 방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건축의 생활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공공성 구현 외에도 건축이 갖추어야 할 건축물의 생산부터 유지관리 전생애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건축산업 경쟁력 향상 등의 가치도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건축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축기본법」에 대해 전반적 검토하여 건축정책의 기본이념과 정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고,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건축기본법」의 개정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김영현

Global Institute Report, 2017), 투자 규모도 2017년 이후 정체되고 있어 건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과 전환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건축물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서비스가 구현되는 공간이자 융복합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시장형성 등 생태계 구축을 위해 표준화된 건축물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스마트건축 인증'을 제안하고 세부 평가기준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과 사례 조사를 통해 건축물과 연계 가능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수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인증 기준들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부문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와 제도적 지원 체계 등을 결론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 지원에 기여하고자 한다.

남성우

## 수시과제

### ① 스마트건축 인증 세부평가기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관련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생활의 혁명'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도 2016년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각 부처별로 4차 산업혁명 기술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반면, 건축·건설 분야는 디지털화 지수가 6%로 정보통신기술(95%), 제조(28%), 농림수산(10%)과 비교하여 디지털 전환 속도가 뒤처지고 있으며(Mckinsey

## 제2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 ‘마을재생의 다양한 시도 : 트랜지셔널 어버니즘 & 택티컬 어버니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7월 1일(금) 군산 카페소렐에서 제2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마을재생의 다양한 시도 : 트랜지셔널 어버니즘 & 택티컬 어버니즘’이라는 주제 아래 트랜지셔널 어버니즘 프로젝트를 제안 및 실천하고 있는 프랑스 건축도시그룹 까바농 벡띠깔(Cabanon Vertical)의 사례와 사람 중심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 택티컬 어버니즘을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도시공간 재생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로 디자이너 Emilie Jaguin과 매니저 Chloé Lechalupé가 까바농 벡띠깔의 조직구성과 프로젝트 현황을 설명하였다. 이에 까바농 벡띠깔이 수행한 프로젝트 ‘Aix-en-provence’, ‘Village d’Alix(Lyon)’, ‘Carriet(Bordeaux)’를 차례로 소개하며 주민참여 연계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위한 방법론과 개발과정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발제는 박지호 체인지워크 대표의 ‘체인지워크의 택티컬 어버니즘’을 주제로, ‘청량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 프로젝트’, ‘중앙대학교 교통정문화 실험 프로젝트’, ‘회기동 임시공원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진행을 맡고, 윤주선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Olivier Bedu 까바농 벡띠깔 예술감독, 추민아 까바농 벡띠깔 디자이너가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 트랜지셔널 어버니즘과 택티컬 어버니즘의 참여과정을 통해 본 장·단점과 가능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2022 도시와공간포럼 '뉴노멀 시대의 공간혁명과 융복합 디지털 전략'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e대한경제가 공동 주최한 '2022 도시와공간포럼'이 7월 13일(수)~14일(목) 양일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뉴노멀 시대의 공간혁명과 융복합 디지털 전략'을 주제로, 각 분야별 석학들과 함께 팬데믹 이후 주거 및 근무환경에 대한 공간혁명을 비롯하여 도시공간, 산업, 금융, 헬스, ICT를 접목한 미래도시의 모습을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14일 치러진 본 세션에서는 첫 번째 기조강연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시정책의 과감한 전환, 서울비전 2030'을, 두 번째 기조강연으로 하라켄야 일본 디자인센터 대표의 '유동의 시대-나뉘어 연결되고 떨어져서 모이는(遊動の時代-分かれてつながる、離れてあつまる)'을 발표하였다. 이어진 특별대담은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과 하라켄야 대표가 함께 '미래도시의 모습'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공간과 욕망, 부동산 등 도시와 공간에 대한 여러 이슈를 논의하였다. 끝으로 팬데믹 이후 새롭게 변화한 도시와 공간의 다양한 모습을 조명하는 강연이 마련되었으며, 이 중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간의 재편, 초광역화 미래진단' 세션에서 '지역소멸 대응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을 주제로 로컬리즘 기반 지역재생을 위한 통합 공간관리 방안을 설명하였다.

## 2022 제1차 AURI-광역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포지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5일(금) 제주문학관에서 2022 제1차 AURI-광역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지난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해 온 건축자산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정책의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는 오영훈 도지사의 환영사와 이영범 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제1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축자산 정책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제2부에서는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 주제발표에서 첫 번째로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조사의 활용과 등록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두 번째는 양건 가우건축 소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건축자산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 추진 사례'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창현 제주도 건축지적과 과장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제2부 종합토론은 우동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진행을 맡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이규철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박기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 김용미 전 제주특별자치도 총괄건축가가 토론에 나섰다.



##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세미나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국가승인 통계의 의의와 활용'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7월 14일(목)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 및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승인번호 462001호)에 관한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활용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로,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가승인 통계의 작성방법과 활용방향, 향후계획을 담은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주요내용 및 활용방향'을 발표하였다. 두 번째 발제로 한근식 한신대학교 교수가 '국가승인 통계의 의의와 가치'를 주제로 통계작성기관의 역할과 업무내용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건설분야 국가승인 통계의 종류와 산업적·정책적 효과'를 통해 건설분야 국가승인 통계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전하였다.

이후 박재범 대한건축사협회 연구위원, 조성오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홍성환 국토교통부 사무관과 함께 토론을 진행한 가운데 김상호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종합의견을 정리하며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auri

## 2022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포럼 '한국형 CCRC 미리보기'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월 15일(금)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2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한국형 CCRC 미리보기'를 주제로 우리나라 복지 및 건축도시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초고령사회 대응 및 한국형 주거복지 연계형 돌봄마을(K-CCRC)의 중요성과 지향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행사는 박진경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의 개회사와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현장전문가들의 사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사례발표로, 김종빈 소셜디벨로퍼그룹 더함 이사가 '아파트형 마을공동체 모델'에 대해 발표하였고, 두 번째 사례발표로, 김정석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실장이 '한국형 시니어 주거공동체 모델'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문광호 공무원연금공단 실장은 '은퇴자공동체마을 모델'을 설명하였다.

사례발표에 이어 정순돌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기노채 한국주택도시협동조합연합회 대표, 한은화 중앙일보 전문기자, 이중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 이운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이 참여해 우리나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국형 주거복지 연계형 돌봄마을의 필요성과 분야 간 협업의 중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 2022 공공건축 포럼 ‘모두 함께 만드는 공공건축’ 개최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7월 21일(목) 서울 인사동 코트 별관 2층에서 2022 공공건축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모두 함께 만드는 공공건축’을 주제로, 좋은 공공건축 조성을 위해 운영자와 이용자, 건축가, 행정가 등 여러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지 모색함으로써 제도적 개선방향을 탐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는 조성룡 조성룡도시건축 대표의 기조발제 ‘우리들을 위한 공공건축’을 시작으로 공공건축 조성과 관련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로 임유경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공공건축 조성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두 번째로, 지정우 이유에스플러스 건축 대표가 ‘다음세대를 위한, 다음세대에 의한 공공건축 만들기’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양민구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이 ‘학교도서관과 마을도서관의 상생, 김영수도서관’을 발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강미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정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기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 심한별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선임연구원, 장진우 수원시 도시디자인단 디자인개발팀장이 참여해 건축기획, 설계공모, 민간전문가 등 공공건축을 둘러싼 현안을 논의하였다.



## 2022 제58차 세계조경가대회 AURI 스페셜세션 ‘기후변화와 팬데믹 이후의 도시공원과 공공공간’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8월 31일(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2022 제58차 세계조경가대회\* AURI 스페셜세션을 개최하였다. 스페셜세션은 ‘기후변화와 팬데믹 이후의 도시공원과 공공공간’을 주제로, 글로벌 조경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도시공원 및 공공공간의 역할과 기능,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행사는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로 미국 워싱턴 대학교 Jeff Hou 교수가 ‘A Post-Pandemic Urban (Park) Agenda’를 발표하였고, 두 번째로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 박소현 교수는 ‘Disruptive Thinking for Future of Urban Parks’에 대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은석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How to use green infrastructure to improve the resilience of cities in climate crisis era’를 통해 기후변화 위기에서 녹색건축의 역할을 전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교의 Bruno Marques를 좌장으로 하여 James Hayter IFLA 회장, Catherine Nagel 미국 City Parks Alliance 이사, 고정희 독일 Thirdspace Berlin 대표, 정욱주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

\* 세계조경가대회(IFLA World Congress)는 매년 국가별로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조경가 회의이다.

## 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 ‘도시재생 집수리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9월 2일(금) 강원도 홍천군 한마당 강당에서 열린 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에서 ‘도시재생 집수리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은 2013년 「도시재생법」 제정 이후 추진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알리고 도시재창조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경제 활력과 균형발전의 도시재창조’를 슬로건 삼아 8월 31일(수)부터 9월 2일(금)까지 3일간 진행되었다.

이 중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이 주관한 도시재생 집수리 우수사례 발표회는 도시재생사업 중 주민만족도가 높은 집수리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하여 사업 참여자를 격려하는 것은 물론, 우수사업지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로 마련되었다. 총 34개의 사업지가 접수하였으며 ▲사업운영 체계성 ▲사업성과 ▲지역기여도를 합산한 결과,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 1팀, 최우수상(강원도지사상) 1팀, 우수상(건축공간연구원장상) 3팀을 선정하였다.

행사는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진행을 맡았으며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산업과 한철민 사무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대상을 수상한 경북 영주시와 우수상을 수상한 강원 춘천시·경남 창원시의 집수리사업 부문 사례발표,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구 동구와 우수상을 수상한 경북 경산시의 집수리 교육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사례발표가 차례로 이뤄졌으며 이상민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맺음말로 마무리되었다.

## 2022 대한민국 국토대전 시상식 개최



건축공간연구원,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2 대한민국 국토대전 시상식'이 지난 9월 2일(금) 서울 엘타워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등 7개 학회 및 기관이 주관하며, 파이낸셜뉴스가 후원했다.

2022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을 슬로건으로 우리나라 국토 및 도시공간에서 이루어진 창의적인 물리적 공간 조성 사례를 발굴하고 알리는 경관분야 대표 행사로 올해 14년째를 맞이하였다. 총 9개 부문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총 83개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류 및 현장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우수작 23점을 선정하였다.

'청와대 주변 탐방로 및 문화경관 조성사업'은 인근 도심 관광 자원과 연계해 유인력 높은 문화관광 거점 공간으로 역할을 하여 국민의 관심과 호감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백운호수 주변 복합개발사업'은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는 백운호수 주변에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적 주거단지 등을 건설하여 도시기능을 활성화한 모델 사례로 호평을 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장상(경관행정 부문)은 평택시와 고양시에게 돌아갔다. 평택시는 '품격 있는 도시를 향하여'로 경관행정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해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경관행정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고양시는 '사람과 공간 그리고 미래를 그리는 고양시 경관계획'으로 시민 생활권을 세분화하여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질 수 있는 경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건축공간연구원-주택관리공단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은 8월 4일(목)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공간의 질에 기초한 정책 개발·지원 ▲발전적 주거문화의 형성과 확산 기반 구축 ▲주거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복지 및 공공서비스 개선 등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입주자의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디자인·서비스·커뮤니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 전했으며, 주택관리공단 서중균 사장은 “영구임대주택은 대부분 건설한지 3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 입주인 상당수가 고령, 장애인, 1인가구로 특히 독거노인의 거주비율이 높다”며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주거수요와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과 입주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 건축공간연구원-한국산업단지공단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은 8월 29일(월)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노후한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건축 디자인 품질을 향상하고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행하는 공공 및 민간 건축사업을 대상으로 계획단계부터 전문가 사전검토를 지원할 예정이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기존 산업단지의 녹색화 및 스마트화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노후 산업단지의 공간 개선을 위한 정책을 기획하고 발굴하고자 한다.

이에 ▲산단 내 공공건축 사전검토 협력 ▲노후산단 공간 개선을 위한 관련 연구, 정책 기획·발굴·추진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 자료 공유를 통해 업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등 산업단지 공공 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사업 등 민간분야에서도 다양한 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22 제3회 AURI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9월 2일(금)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2 제3회 AURI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AURI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연구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2015년부터 진행되어 왔다. 올해는 건축·도시 전공 학생들 중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소속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은 연구원 견학과 연구원 소개, 현직자 강의로 구성되었다.

연구원 견학 및 소개 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연구 사업과 채용 연계 프로그램,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채용 시기, 방법, 절차, 평가 항목을 안내하였으며 관련 발간물을 제공하였다. 현직자 강의에는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국책연구기관에서 건축의 이상을 현실로'를 주제로 사회문제에 대한 공적인 대안으로서의 건축을 설명하였다.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도시 분야 대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학생들의 폭넓은 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지역의 우수 인력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